

광양 상수도로 매년 7.1%씩 3년간 인상

내년부터 요금 현실화하기로 20t 사용 가정 1000원 올라

광양시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나선다. 생산원가보다 저렴한 수도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광양시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상수도 요금을 내년 1월 고지분부터 3년(2017~2019)동안 평균 7.1%씩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원수 요금을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인상했지만, 광양시는 지난 2012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면서 생산원가보다 낮은 공급가로 요금 현실화율이 81.03%에 그치고 있다.

광양시는 특히 2017년까지 원가에 준하는 공기업경영 합리화(요금현실화)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국비를 감액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가정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1톤당 2017년 650원, 2018년 700원, 2019년 750원이며, 내년에 가정용 20톤을 사용할 경우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광양시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형)와 장애인(1~2급)의 요금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가정용 월 3톤 사용량

의 요금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납기 후 가산금도 3% 일괄부과가 아닌 일괄계산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영업용 건물에 적용되던 1계량기 원칙이 누진제 불만이 높아 추가 계량기 설치 가능성이 높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장민석 광양시 수도행정팀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인상은 노후관 교체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요금 인상에 따른 모든 혜택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광양시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무리하고, 3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광양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예정이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광양 상수도 보급률 2035년 99%로 확대

광양시가 2035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99%까지 끌어 올리는 광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양시는 최근 문화관광, 건설, 도시, 산단조성, 택지조성 과장 등 관계 부서장과 용역회사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열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각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중·장기 물 수요관리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35년 광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의 주요 내용은 광양읍권 목성지구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지구에서 필요로 하는 2035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수요량을 산정하고 정수시설, 배수지, 송·배수

관로 등 수도시설 확충·개량 계획을 다루고 있다.

광양시는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2035년 광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확정하고, 올 12월까지 환경부의 최종 승인받을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 계획이 승인되면 국비 포함 총 사업비 1033억 원을 투입해 2035년까지 수도시설과 비상연계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구봉산전망대 연계 산림휴양공간 조성

힐링숲길·야외쉼터 등 市, 2018년까지 19억 투입

광양시가 2018년까지 구봉산 전망대에 있는 구봉산 일원에 대규모 녹색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한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구봉산 전망대와 연계된 주변지역 산림 60여ha에 19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힐링숲길과 야외쉼터, 네이처 스포츠, 숲가꾸기, 경관조립 등 권역별 테마가 있는 구봉산 산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 등 편입 예정 토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도 상반기에 착공해 2018년 준공 예정이다.

정현주 광양시 산림과장은 “구봉산

전망대 등 주변 관광시설과 산림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봉산은 호남정맥의 백운산에서 남하하는 주능선과 연결된 해발 473m의 산으로, 도심권과 가깝고 전망대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특히 구봉산 전망대에서는 광양시 전역과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항은 물론, 여수와 순천, 하동, 남해 등 광양민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관광명소, 디지털 봉수대와 산책로, 포토존 등이 들어서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늦깎이 어르신 80여명 강진 체험학습

광양시는 “최근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독프로그램’ 학습어르신 80여명과 함께 강진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험학습은 그동안 책으로 배웠던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며 학습에 즐거움을 더하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어르신들은 영랑생가와 시문학관 기념관을 방문해 1930년대 순수시 운동을 전개했

던 김영랑, 정지용, 변영로, 신석정 등 시인들의 작품을 만나고, 전시물을 통해 일제강점기 시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간 유배생활을 하며 목민심서를 비롯해 50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던 다산초당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체험학습에 참여한 80대 고령의 한 어르신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공부를 멈추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오늘 LF스퀘어 입점 브랜드 채용박람회

샵매니저 등 400여명 채용

광양시가 함께하는 ‘LF스퀘어 입점 브랜드 채용박람회’가 4일 광양시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정현복)와 (주)LF네트웍스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박람회는 올해 말 개장을 앞둔 ‘LF스퀘어 광양점’의 입점 브랜드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용박람회는 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직접 채용관과 간접 채용관, 부대행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직접 채용관은 ‘LF스퀘어 광양점’에 입점이 확정된 CGV 등 60여 개 브랜드 업체에서 직접 면접을 실시한다. 샵매니저, 판

매사원, 식음료조리과 홀서빙, 보안·주차·미화·시설분야 등 400여 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간접 채용관에서는 (주)LF네트웍스가 남성/여성, 스포츠/아웃도어, 캐주얼/잡화 등 분야별로 면접 후 이력서를 접수하며, 추후 브랜드 업체가 확정되면 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 부대행사로 종합안내 상황실, 여성·장애인·노인 구직 상담, 이력서 작성대, 정보 검색대, 무료음료 서비스, 무료사진관 등을 운영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광양시청과 광양희망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참여하면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항 터미널 운영사 적극 육성해야”

해운항만산업 미래 세미나

한진해운 사태 등 최근 해운경기 불황 극복 방안으로 터미널 운영사(GTO, Global Terminal Operator)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UNCTAD(UN무역개발회의) 해운항만책임자 앤 호프만 박사는 최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열린 ‘해운항만산업의 미래와 대응 세미나’에서 “한국이 해운 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터미널 운영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 해운경기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광양항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광양항만의 차별화 전략

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응 방안으로는 “배후단지를 통한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 등 수출입 로컬화물 확보를 통한 거점항만 육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 호프만 박사는 또 “세계 해운 열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터미널 운영사의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며 “광양항도 급변하는 해운경기에 대응해 GTO를 집중 유치,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중앙대 동북아물류연구소가 공동으로 광양항 관련 해운항만물류 업·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50여명의 항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체제 돌입

광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활동을 멈추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재선충병 완전 방제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광양지역에는 지난 2010년 11월 첫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으며, 현재 1읍 5면 1동을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산림 343ha를 대상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솔수염하늘소 방제를 완료했으며, 재선충병 발생 빈도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고사목에 나무주사를 시행하는 한편 생육상태가 불량한 지역이나 선단지 형태의 피해목 발생지와 집단피해 지역은 모두베기를 하고 있다.

모두베기 대상지는 산 주인이 동의할 경우 전역 시비를 지원해 조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눈에 쉽게 띄는 도로변 주변에는 미관상 좋지 않은 훈증



광양시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무더기 처리 방식이 아닌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파쇄 방제 방법을 진행중이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진월·효천지구 초입구 사거리

SH BUILDING

광주 남구 행암동 699번지 전용률 83%, 대지면적 1,826.90㎡, 지상 4층, 주차장 36대

임대·분양

진월지구,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 중심지, 빚고을 CC 노인건강타운과 전남대병원,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1층

금융, 약국, 의류, 커피숍, 안경(입점확정), 호프, 식당

2층

의원, 커피숍, 스킨케어샵, 치과, 학원, 사무실

3층

패밀리레스토랑, 요가, 의원, 휘트니스 등, 학원, 사무실

4층

495㎡, 한식, 카페, 패밀리레스토랑 ※4층 테라스 무료사용가능(150명)

평지분 상가지분

각 상가 개별등기 가능 준공필

분양문의

(062)676-4006 · 010-5681-4015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중합건설(주)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양산지구·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라인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로 내집마련 (1,100만원~내집마련)

2억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중소형 (구)26형 / (구)30형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분양문의 (062) 351-4610

모텔하우스 (주)유탑다인시스 (주)유탑건설 (주)유탑